
2024년 강원테크노파크
3월 3-4주차 주요기사
- 3.18.(월) ~3.29.(금) -

목 차

언론사	제목	페이지
1. 강원테크노파크 환경경영국제표준 ISO14001 인증 획득		
MS투데이	강원테크노파크, 환경경영 국제 표준 인증 획득	3
2. '강원 지역인재채용 페스타' 개최		
뉴스1	"제발 취업했으면 좋겠다"... 채용페스타에 몰린 취준생들 [르포]	4-7
동아일보	"일하고 싶은 기업 여기 다 모였네"	8-9
MS투데이	"강원 공공기관 다모였네"...지역인재 채용페스타 열기 '후끈'	10-11
3. '강원 AI헬스케어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공청회' 개최		
강원일보	"강원자치도서 AI 헬스케어 기반 유니콘 업체 발굴에 적극 힘..."	12
4. 강원테크노파크 지역 강소기업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업 간담회 추진		
강원일보	강원테크노파크, 강릉기업 하스 방문 간담회 성료	13
파이낸셜뉴스	강원TP, 치과 재료 생산 하스 방문...협력 강화키로	14
머니투데이방송	강원테크노파크-하스 기업, 간담회 개최	15
5. 강원테크노파크 신임 기업지원단장 선임		
노컷뉴스	최갑용 강원TP 기업지원단장 임명	16
강원일보	강원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장에 최갑용 전 춘천시의회 사무국장	17
6. 춘천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선정, 강원TP 사업 운영 협업		
강원일보	춘천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선정	18
연합뉴스	춘천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19-20

2024년 3월 18일 (월)

강원테크노파크, 환경경영 국제 표준 인증 획득

☞ 권소담 기자 | ⌚ 승인 2024.03.18 08:46

| 우리동네 소식



강원테크노파크는 최근 환경경영 국제 표준인 'ISO14001' 인증을 획득했다. (사진=강원테크노파크)

강원테크노파크는 최근 환경경영 국제 표준인 'ISO14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ISO14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시행하는 환경경영 체계에 관한 국제 규격으로, 조직이 환경적 요건을 준수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강원TP는 환경경영방침에 따라 환경법규 준수 및 관리, 내부심사, 환경영향평가 실시 등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시스템 운영 기반을 구축했다.

허장현 강원TP 원장은 “최근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재단 ESG 경영전략 중점 과제 중 하나인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했다”며 “ESG 경영을 선도하는 기관으로서 지속적인 개선과 고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권소담 기자 ksodamk@mstoday.co.kr



전국 > 강원

"제발 취업했으면 좋겠다"... 채용페스타에 몰린 취준생들 [르포]

'강원 지역인재채용 페스타' 20일 호반체육관서 열려
쌀쌀한 날씨에도 아침부터 대학생·직업계고 학생 북적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2024-03-20 13:31 송고



20일 오전 11시쯤 지역인재채용 페스타가 열리는 강원 춘천 호반체육관에 설치된 채용공고 게시판에 취업준비생들이 채용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2024.3.20 한귀섭 기자

"제발 취업했으면 좋겠다."

춘분인 20일, 갑자기 몰아친 추위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간절히 희망하는 청년들이 강원 춘천에 모였다.

새로운 강원! 특별 지치시대!

이날 오전 10시 '지역 인재 채용페스타'가 열린 춘천 호반체육관엔 채용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 택시·버스 등을 타고 온 대학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원주의료고 학생들을 태운 대형 버스도 행사장인 체육관 앞에 도착했다. 버스에서 내린 학생들은 입구에서 채용 정보가 담긴 팸플릿을 챙겨 들고 행사장 내부스를 돌아다녔다.

원주의 실업계고 학생들은 시가 마련한 대형 버스를 타고 채용 페스타 현장을 찾았다. 한림대, 강원대, 상지대, 경동대 학생들은 각 대학이 제공한 버스를 타고 왔다.

이날 채용페스타 현장엔 휴레브, 케이 프라이드, 지오맥스소프트, 남이섬, 세인트존스 호텔 등 지역기업은 물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공원공단, 도로교통공단, 한국관광공사 등 공공기관 부스가 마련됐다.



20일 오전 11시쯤 지역인재채용 페스타가 열리는 강원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취업준비생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2024.3.20 한귀섭 기자

또 강원개발공사, 강원신용보증재단, 강원테크노파크 등 지역 공기업들도 부스를 차렸고, 취업 컨설팅을 위해 춘천고용센터, 춘천시 일자리센터, 공공 컨설팅 등도 함께했다.

새로운 강원! 특별 자치시대!

올해 채용페스타는 원주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만 참여하던 기존 채용행사와 달리, 이처럼 지역 기업과 공공기관까지 참여하면서 취업준비생들의 선택 폭을 넓혔다.

이날 행사장에선 원주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에 대한 취업준비생들의 관심이 컸다. 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도로교통공단 부스엔 취업 전형에 묻는 학생들이 끊이지 않았다.

도로교통공단 부스에서 친구와 함께 채용을 문의한 김도윤 군(19·원주의료고)은 "원주에서 살기도 하고, 빨리 취업하고 싶은 마음에 도로교통공단을 찾았다"며 "공단은 채용 직렬이 많아서 많은 학생이 (취업을) 선호하는 곳이다. 대학엔 가지 않고, 빨리 취업에 성공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취업이벤트관 내 '인생네컷' 사진관에선 취업 스트레스를 날려 보내고자 함께 사진을 찍는 대학생과 고3 학생들의 모습도 보였다.

이날 채용 부스를 찾은 한 취업 준비생이 "제발 취업했으면 좋겠다"고 말하자 함께 있던 친구들이 "다 잘될 거야"라며 응원하기도 했다.



20일 오전 10시 30분쯤 지역인재채용 페스타가 열리는 강원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원주의료고 학생들이 도로교통공단 직원들로부터 채용 설명을 듣고 있다. 2024.3.20 한귀섭 기자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을 알아보던 이수연 씨(23·강원대 경영학과)는 "친구들이 취업했다는 소식이 점점 (더 많이) 들리니 괜히 불안하기도 하지만, 묵묵히 준비해 지역 공공기관 취업을 꼭 하겠다"며 "일단 휴학계를 내고 영어(시험)를 준비하고 NCS(국가직무 능력표준) 전형도 본격적으로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군에서 제대한 후 복학했다는 황석영 씨(24·강원대 행정학과)는 "졸업하려면 2년 넘게 남았지만, 그래도 취업 분위기를 알아보기 위해 왔다"며 "아직 취업 부담감은 없지만, 1~2년 지나면 부담으로 다가올 것만 같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채용페스타 현장에선 5개 공공기관의 신입사원이 직접 나와 자신들의 취업 사례와 취업 준비 방법 등을 취업준비생들에게 설명할 예정이다.

또 'NCS 일타강사'로 불리는 윤종혁 해커스잡 강사, '취업의 신' 황인 강사의 강의 및 특강도 예정돼 있다. 이날 행사는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강원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인기가 좋아 2000여명이 넘게 다녀갔다"며 "도내 취업준비생들이 희망하는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4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인재 채용 페스타'는 강원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와 강원테크노파크, 도 경제 진흥원이 주관한다.

2024년 3월 20일 (수)

“일하고 싶은 기업 여기 다 모였네”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4-03-20 03:00



지난해 3월 강원 원주시 치악체육관에서 열린 '강원지역 지역인재 활동 채용 설명회'. 올해는 규모를 확대해 채용 페스티벌로 개최한다. 강원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제공

강원도 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우수기업의 채용 정보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2024 강원도 지역인재 채용 페스타'가 2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춘천시 호반체육관에서 열린다.

강원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강원테크노파크, 강원도경제진흥원이 공동 주관하는 이 행사엔 공공기관 10개와 강원도 지방공기업 10개, 우수기업 13개가 참여해 대규모로 진행된다. 페스타에 참여하는 우수기업은 남이섬을 비롯해 더프레시에프엔비, 레고랜드, 메디언스, 세인트존스 호텔, 일동후디스, (주)단정바이오, (주)씨디에스, (주)지오맥스소프트, (주)윌트론, 케이프라이드, 한화제약(주), 휴레브 등이다.

오전 10시부터 기관과 기업의 개별 부스에서 취업 준비생을 상대로 채용 제도를 설명한다. 또 고용노동부의 정책 안내 부스, 인공지능(AI) 면접관, 인·적성 검사관 부스 등이 운영된다.

메인 무대에서는 인사 담당자의 채용 설명회와 신입사원 토크콘서트, 청년정책 설명회, 공공기관 채용 특강, 특별강연 등이 이어진다. 채용 설명회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공원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도로교통공단, 한국관광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강원랜드, 강원관광재단 등 8개 공공기관 인사 담당자가 올해 채용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질문에 답한다.

신입사원 토크콘서트에서는 강원랜드, 심평원, 건보공단, 한국관광공사, 보훈공단 등 5개 공공기관의 신입사원들이 자신이 경험한 취업 준비 방법 등을 알려준다.

청년정책 설명회는 고용부 강원지청 춘천고용센터, 강원도경제진흥원 등 2개 기관이 청년들에게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될 만한 정책들을 소개한다. 공공기관 채용 특강에서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일타강사'로 불리는 해커스잡 윤종혁 씨가, 특별강연은 '취업의 신'으로 불리는 황인 씨가 강사로 나선다. 또 채용상담관은 페스타에 참여하는 33개 기관과 기업이 함께 참여한다.

이 밖에 기관 및 우수기업 취업 컨설팅, 고졸 채용 컨설팅, 외국인 취업 컨설팅, 강원도 및 춘천시 청년정책 안내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운영된다.

올해 행사는 지난해와 달리 강원 소재 우수기업까지 참여해 규모가 크게 확대됐다. 지역 인재들은 한자리에서 다양한 공공기관과 기업의 채용 정보를 살필 수 있는 기회다.

전경희 강원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장은 "이 행사는 공공기관뿐 아니라 도내 우수기업에 대한 채용 정보도 함께 제공돼 지역 인재가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취업을 준비하는 지역 인재들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2024년 3월 21일 (목)

“강원 공공기관 다모였네”...지역인재 채용페스타 열기 ‘후끈’

진광찬 기자 | 승인 2024.03.21 00:05

[현장] 20일 춘천 호반체육관서 지역인재 채용페스타 열려
고등학생부터 이직 준비 직장인까지 북적
도내 공공기관·공기업 등 총 33곳 부스 오픈
채용 특강, 설명회, 이벤트 부스 등 풍성

“강원도에 이렇게 많은 기업이 있는지 몰랐어요. 열심히 해서 꼭 취업해야죠.”

절기상 춘분인 20일 춘천 석사동 호반체육관. 때늦은 꽃샘추위에도 ‘2024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인재 채용페스타’ 행사장은 취업 준비생들이 물리면서 북적였다.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부터 대학생, 이직을 준비하는 직장인까지 도내 기업들의 채용 정보를 얻기 위한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다.

이날 채용페스타에는 강원랜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도로교통공단, 한국관광공사 등 도내 공공기관 10곳과 강원개발공사, 강원관광재단, 강원테크노파크 등 지역 공기업 10곳이 채용 상담 부스를 열었다. 일동후디스, 주식회사 남이섬, 레고랜드코리아까지 지역 주요 기업 13곳도 참여했다.



20일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열린 2024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인재 채용페스타에 참석한 취업준비생들이 행사장 입구에 놓인 상담 부스 예약 QR코드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진광찬 기자)

새로운 강원! 특별 자치시대!

이날 각 기업별 채용 상담은 행사장 입구에 마련된 QR코드를 찍어 예약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원랜드, 한국관광공사 등 인기가 많은 공공기관은 예약 후 2~3시간가량 기다려야 상담이 가능했다. 현재 채용 접수 중이라는 안내를 내건 강원자치도경제진흥원 부스에도 구직자들이 몰렸다.

현장에서 만난 취업준비생 김수연(27)씨는 “원래 가고자 했던 직무랑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공기업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이번 행사를 통해 큰 도움을 얻었다”며 “부스 3~4곳을 돌았는데, 인기가 많은 기업은 경쟁률이 치열해서 예약해두고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도내 고등학생과 대학생들도 학교에서 마련한 대형버스를 타고 행사장을 찾았다. 이들은 행사 팸플릿을 하나씩 손에 쥔 채 분주하게 움직였다. 특히 강원대·한림대 일자리플러스센터와 고졸채용 컨설팅 부스에는 고등학생들이 몰려 인산인해를 이뤘다.

공공기관 컨설팅을 받은 대학교 4학년 이해인(25)씨는 “학교에서 채용페스타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는데 생각보다 규모가 커서 놀랐다”며 “아직 졸업까진 1년 정도 남았지만, 슬슬 취업을 준비해야 할 것 같아서 찾아왔다”고 말했다.



20일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열린 2024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인재 채용페스타가 취업준비생들로 북적이고 있다. (사진=진광찬 기자)

공공기관 인사담당자의 채용설명회도 열렸다. 총 8곳의 인사담당자가 올해 채용계획을 안내하고 즉석에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또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일타강사로 불리는 해커스잡 윤종혁 씨와 ‘취업의 신’ 황인 강사가 공공기업 채용 특강을 진행했다. 공공기관 신입사원이 단상에 올라 자신의 취업 준비 과정 등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에도 관심이 높았다.

한 공공기관 인사담당자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사람이 참석한 것 같은데, 다들 눈에서 열정이 엿보인다”며 “물어보는 것들은 최대한 다 답변해드리고 있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취업준비생들을 위한 이벤트관도 인기였다. 면접 헤어·메이크업 방법을 전수하는 ‘이미지 메이킹’과 ‘퍼스널컬러 진단’ 부스는 예약자가 많아 대기 시간이 7~8시간까지 불어났다. 한켠에 마련된 인생네컷 사진관도 친구들과 함께 사진을 찍기 위한 학생들로 긴 대기줄이 생기기도 했다.

전경희 강원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장은 “이번 행사는 공공기관 채용 정보뿐 아니라 도내 우수기업에 대한 채용 정보도 함께 제공돼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지역인재들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강원자치도서 AI 헬스케어 기반 유니콘 업체 발굴에 적극 힘 모아"

허남윤기자 paulhur@kwnews.co.kr

입력: 2024-03-18 19:08:16 | 수정: 2024-03-19(21면)

강원 AI헬스케어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공청회 원주서 열려
정부 규제 혁신 생태계에 부응...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진화 기회



◇강원 AI헬스케어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공청회가 18일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대강당에서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테크노파크, 사업 관계자, 기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AI(생성형 인공지능)를 기반으로 하는 강원형 헬스케어산업의 유니콘 기업이 탄생될 지 주목된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재)강원테크노파크는 18일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대강당에서 '강원 AI헬스케어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 자리에는 자치단체 담당자와 사업 관계자, 기업인 등이 참석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사업의 추진 배경은 글로벌 스탠다드를 선도하는 규제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정부의 방침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글로벌 혁신특구 10개를 신규 조성하고, 딥테크 유니콘 10를 신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참여 기업들의 반응은 후끈했다. 일각에서 AI 기반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이 전환되는 것에 우려감을 나타냈지만, "AI가 아니더라도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의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는 답변에 안도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혁신수가(임시수가)에 대한 궁금증을 묻는 질의에는 건강보험공단과 향후 협의 계획이라는 점과 참여기업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을 모색하는 식의 구체적인 답변이 제시됐다.

윤완태 강원TP 규제혁신팀장 "디지털헬스케어와 정밀의료 등 기존 규제자유특구의 운영성과를 토대로 규제자유특구의 기능과 역할을 고도화한 글로벌 유니콘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우선 AI헬스케어산업의 육성을 위한 보건의료 실증 데이터 확보가 요구된다. 이를 기반으로 신기술을 발굴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우위를 갖추기 위해 힘을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일반

강원테크노파크, 강릉기업 하스 방문 간담회 성료

이규호기자 leekh@kwnews.co.kr

입력: 2024-03-20 17:09:05 | 수정: 2024-03-21 (07면)



◇강원테크노파크(원장:허장현)는 지난 19일 지역 강소기업인 강릉 '하스'를 방문,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강원테크노파크(원장:허장현, 이하 강원TP)는 지난 19일 지역 강소기업인 강릉 '하스'를 방문,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하스는 치과용 심미 보철 재료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주력 제품인 지르투스, 로제타, 앰버를 중심으로 치과용 글라스 세라믹 보철 수복소재 분야에서 국내 최초이자 세계 두 번째로 상용화시켰다.

2008년 설립된 이후로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해 현재는 185개의 글로벌 파트너와 90여개국으로 수출되는 등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는 기업이다.

허장현 강원TP 원장은 "하스의 지속가능한 제품 혁신과 인류의 건강을 위한 신제품 개발열정이 첨단 바이오산업의 미래 중심지로 향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중요한 뿌리자산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하스의 성장이 지역경제 발전과 산업생태계를 조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강원TP역시 최선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장현 강원테크노파크 원장이 지난 19일 강릉에 위치한 하스를 방문, 간담회를 갖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강원TP 제공

【파이낸셜뉴스 강릉=김기섭 기자】 강원테크노파크(이하 강원TP)가 강릉에 위치한 치과용 심미보철 재료를 생산하는 하스를 방문, 연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20일 강원테크노파크에 따르면 허장현 강원TP원장은 지난 19일 지역 강소기업인 기업 하스를 방문,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하스는 치과용 심미 보철 재료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주력 제품인 지르투스, 로제타, 엠버를 중심으로 치과용 글라스 세라믹 보철 수복소재 분야에서 국내 최초이자 세계 두 번째로 상용화시켰다.

또한 2008년 설립된 이후로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 현재는 185개의 글로벌 파트너와 협력 관계를 맺고 있으며 제품을 90여개국으로 수출하는 등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다.

허장현 원장은 "하스의 지속가능한 제품 혁신과 인류의 건강을 위한 신제품 개발 열정이 첨단바이오산업의 미래 중심지로 향하는 강원자치도의 중요한 뿌리자산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하스의 성장이 지역경제 발전과 산업생태계 조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강원테크노파크 역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년 3월 20일 (수)

강원테크노파크-하스 기업, 간담회 개최

지역경제활성화 기대

박시은 기자

입력 2024-03-20 16:38:38



(사진=강원테크노파크)20일 하스 기업을 방문해 간담회 개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강원테크노파크가 20일 지역 강소기업인 하스를 방문해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하스는 치과용 심미 보철 재료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주력 제품인 지르투스(Zirtooth), 로제타(Rosetta), 앰버(Amber)를 중심으로 치과용 글라스 세라믹 보철 수복소재 분야에서 국내 최초이자 세계 두 번째로 상용화됐다.

2008년 설립된 이후로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해 현재는 185개의 글로벌 파트너와 90여 개국으로 수출되는 등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허장현 원장은 "하스의 지속가능한 제품 혁신과 인류의 건강을 위한 신제품 개발 열정이 첨단바이오산업의 미래 중심지로 향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중요한 뿌리자산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어 "하스의 성장이 지역 경제 발전과 산업생태계를 조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강원테크노파크 역시 최선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년 3월 25일 (월)

노컷뉴스

인쇄하기

닫기

최갑용 강원TP 기업지원단장 임명

2024-03-25 14:23 강원CBS 진유정 기자 |



최갑용 단장

최갑용(64·사진) 전 춘천시의회 의회사무국 사무국장이 강원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장에 임명됐다.

강원테크노파크(원장 허장현)는 최근 서류심사를 통해 최종 4명의 후보를 선발한 뒤 면접심사 등을 거쳐 최갑용 단장의 선임 결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 단장은 춘천출신으로 춘성고와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을 졸업했고 강원대학교 행정학 석사과정을 졸업했다. 1980년 공직에 입문해 춘천시청에서 경제관광국 국장, 행정국 국장, 경제환경국 국장 등을 역임했다.

2024년 3월 24일 (일)

인물일반

강원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장에 최갑용 전 춘천시의회 사무국장

이규호기자 leekh@kwnews.co.kr

입력: 2024-03-24 15:07:42 수정: 2024-03-24 15:09:50 지면: 2024-03-25(21면)



강원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장에 최갑용(63·사진) 전 춘천시의회 사무국장이 선임됐다.

최갑용 단장은 춘성고,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강원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춘천시 경제관광국장, 행정국장, 경제환경국장, 춘천시의회 사무국장 등을 역임했다. 임기는 다음달 1일부터 3년이다.

2024년 3월 25일 (월)

춘천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선정

이현정기자 together@kwnews.co.kr

입력: 2024-03-24 14:56:36 수정: 2024-03-24 15:06:30 지면: 2024-03-25(10면)



【춘천】 춘천시가 2024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선정돼 도비 1억2,100만 원을 확보했다.

시는 강원특별자치도 공모사업에 선정돼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업은 지역이 보유한 인적·물적 기반을 활용해 지역 특성과 산업 여건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적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사업 운영기관인 (재)강원테크노파크와 함께 주력산업인 바이오·정보통신기술(ICT)분야의 기술창업 활성화와 기업 맞춤형 묶음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강원테크노파크와 춘천지역의 바이오·정보통신기술 산업 분야 기술창업 및 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 12개 기업을 육성·지원하고 12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

춘천시 관계자는 “첨단지식산업도시로의 도약에 발맞춰 시의 주력산업인 바이오·정보통신기술 분야의 지속 성장형 우수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기업매출 상승과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4년 3월 25일 (월)

 연합뉴스



춘천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송고시간 | 2024-03-25 17:48

| 강원도 공모 선정...바이오·ICT 일자리 개발

(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강원 춘천시가 다음 달부터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의 하나로 바이오·정보통신기술 분야 일자리 지원에 나선다.



일자리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25일 춘천시에 따르면 최근 강원특별자치도의 관련 일자리 공모에 선정, 1억2천만원을 확보함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들어간다.

이 사업의 목적은 지역이 보유한 인적, 물적 기반을 활용해 지역 특성 및 산업 여건에 맞는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이다.

또 강원특별자치도 내 각 지역의 산업과 연계해 지역특화형 고용정책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춘천시는 사업 운영기관인 강원테크노파크와 함께 주력산업인 바이오·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기술창업 활성화와 기업 맞춤형 묶음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춘천시는 지난해 강원테크노파크와 지역 바이오·정보통신기술 산업 분야 기술창업 및 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이 결과 12개 기업을 육성, 지원하고 12명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기도 했다.



춘천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시 관계자는 "첨단지식산업도시로 도약에 발맞춰 시의 주력산업인 바이오·정보통신 기술 분야의 지속 성장형 우수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hak@yna.co.kr